

본 자료는 8월 7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및 온라인은 6일(월)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8. 8. 3 (금)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연구실
담당자	양현봉 선임연구위원 (044) 287-3171, 010-9286-8652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실태와 발전과제

-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92.4%가 네트워크 협력 필요성 인식
- 네트워크 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큰 동기는 ‘신제품 개발’
- 네트워크 협력사업 통한 기술개발 기간은 18.1개월, 신제품 출시 등 사업화 까지 기간은 25.1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 네트워크 협력사업 성공기업의 매출, 고용 증가율은 각각 12.0%, 6.0%
- 네트워크 협력 전담기관 설치·운영,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해야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등 21세기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성장동력화 촉진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장지상)이 발표한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실태와 발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R&D 등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전담지원기관의 설치·운영, 기업 간 협력 문화 조성 및 관련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¹⁾ 필요성에 대한 인식 : 매우 높게 조사

기업 간 네트워크 협력 추진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92.4%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7.6%에

1)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이란 중소기업이 자사의 핵심역량에 기반한 신제품·신사업·신기술 개발, 신시장 진출을 위해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별로는 창업 이후 오래된 기업일수록 네트워크 협력 활동의 필요성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창업 후 5년까지 : 91.0%, 창업 후 6~10년 : 92.0%, 창업 후 10년 이상 : 96.8%).

이는 새로운 산업환경의 변화에 중소기업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네트워크 협력 활동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 이후 오래된 기업일수록 기존 제품의 성장성·수익성 등에 한계를 느끼고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큰 동기 : 신제품 개발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활동 참여 동기는 ‘신제품 개발’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사업 개발 및 공정·서비스 혁신’, ‘신기술개발’, 판로(신시장) 개척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 협력 활동을 통해 신제품, 신사업 등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협력 통한 기술개발 기간 : 18.1개월, 신제품 출시 등 사업화 까지 기간 : 25.1개월 소요

중소기업이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공동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기술개발에 소요되었던 기간은 평균 18.1개월, 사업화(신제품 출시, 신사업 개시 등)까지 소요되었던 기간은 평균 25.1개월로 조사되었다,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소요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7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 상의 기술개발 소요기간(9.3개월) 및 사업화까지 소요되는 기간(13.8개월)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개별 중소기업 차원이 아닌 기업 간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네트워크 협력사업 성공기업의 매출, 고용 증가율 : 각각 12.0%, 6.0%로 조사

네트워크 협력사업 추진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12.0%, 고용은 6.0% 증가하였으며, 수익률(매출액영업이익률)은 9.5%로 나타났다.²⁾

이는 네트워크 협력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고용 창출력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협력 활동 추진 시 애로사항 : 인력·자금 등 기업 내부 여건 및 체계적인 지원제도 미흡

중소기업이 네트워크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력·자금 등 당사의 협력추진 여건 미흡’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제도 활용에 따른 애로사항은 R&D 등 정책자금 규모 적음,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 부재, 관련 법률 및 지원제도 미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결과는 중소기업이 네트워크 협력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기업 내적 요인이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중소벤처기업부의 「2017년 중소기업실태조사(제조업)」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6년도 중소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3.01%, 2016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54%,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계」에 따른 2010~2014년 기간 동안의 중소제조업 평균 고용증가율은 2.5%로 나타나고 있음에 비교해 볼 때,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사업 참여기업의 매출 및 고용 증가율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네트워크 협력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지원제도 : 네트워크 협력 활성화 전담기관 설치·운영

정부가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활동 촉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지원제도는 ‘네트워크 협력 활성화 전담기관 설치·운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업 간 협력문화 및 협업 기반 조성’, ‘기업 간 협력 지원제도 마련·확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 촉진을 위해 기존 중소기업지원기관의 기능 및 역할 변화가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네트워크 협력 전담기관의 설치를 통해 기업 간 네트워크 협력 문화 및 협업 촉진 기반 조성 등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네트워크 협력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필요

정부가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협력 단계별로 체계화된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협력사업 발굴단계에서는 협력 추진 필요성 및 방법론 등에 대한 교육, 협력사업 파트너 매칭, 네트워크형 사업계획 인정제도 도입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자금의 확충 및 새로운 형태의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 R&D자금 마련이 요구된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협력에 의해 개발한 기술 등의 사업화 촉진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 시장개척, 조세 특례 지원 등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협력 활성화 인프라 확충 필요

정부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조직을 통한 네트워크 협력 지원기능을 강화하거나,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활동 전담지원기관(‘가칭’중소기업네트워크협력진흥원 또는 중소기업협업진흥원)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간 네트워크 협력 촉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칭)「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93.3%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에 비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감안한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 양현봉 박사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통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담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및 관련 법률 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 따로 붙임: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실태와 발전과제”